

# 孝昭王代 후기 新羅의 對唐 사절 파견의 의미

윤 태 양\*

1. 머리말
2. 『南單德 墓誌銘』에 나타나는 “平壤”의 의미와 安東都護府·新羅의 동향
3. 699년 신라의 對唐 사절과 “入蕃”의 문제
4. 맺음말

## 1. 머리말

孝昭王(재위 692~702) 시기는 羅唐戰爭 이후 신라와 당이 국교를 회복해 나가는 道程에 있던 시기로, 이 무렵 건국(690) 이후 돌궐·吐蕃·거란 등의 발호와 渤海의 건국, 왕조의 정통성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던 武周가 신라에 유화적인 정책을 펼쳤고 신라도 이에 반응하였다고 여겨져 왔다.<sup>1)</sup> 이러한 시대 분위기 속에서 699년 2월 당에 도착한 신라 사절은 30여 년 만에 朝貢을 명목으로 파견된 사절로서 주목을 받았다. 일찍이 申滢植은 668년 이후 703년까지의 신라·당 관계가 國交斷絶狀態였으며 聖德王대에 양국 관계가 정상화되었다고 규정하면서도, 680년대 국교 재개의 기운이 일어나 699년 2월 30여 년만의 入朝가 이루어졌음을 강조하였다.<sup>2)</sup> 또한 古畑徹은 사절 파견 횟수로 보아 690년대까지 신라와

\* 서강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1) 신정훈, 2007 『新羅 孝昭王代의 政治的 變動』 『역사와실학』 34; 2013 『한국 고대의 서상과 정치』, 해안, 208-213면.

2) 申滢植, 1967 『羅唐間의 朝貢에 대하여』 『歷史教育』 10; 1985 『韓國古代國家의 對外關係』 『韓國古代史의 新研究』, 一潮閣, 327-328면.

당의 관계는 소원하였고 양국 관계는 당의 동북방 정책이 적극적으로 전개된 703년 이후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보면서도, 690년대 신라의 북진 정책과 동북방의 위기로 인해 당이 동방에 유화적인 정책을 펼치게 되었으며, 신라는 이 방침을 탐색하기 위해 699년 2월의 사절을 파견하였고 뒤이은 700년의 正月 개정은 신라의 친당 노선이 명확해졌음을 알려준다고 하였다.<sup>3)</sup>

이상의 연구에서 699년 2월의 朝貢使가 지닌 의미를 강조하면서도 양국 국교는 성덕왕 대에 재개되었다고 본 것은 효소왕 대에 대당 사절 파견의 빈도가 눈에 띄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었다. 이후 효소왕 대에 여전히 신라와 당 관계가 냉각 상태에 있었으며 양국 관계가 회복된 것은 성덕왕 대라고 이해한 연구들<sup>4)</sup> 또한, 그러한 한계성을 중시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반면에 효소왕 대에 양국 국교가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사절로서 699년의 대당 사절이 갖는 의미를 강조한 연구도 존재한다. 일찍이 棚橋利光은 692년 당의 효소왕 책봉과 699년 신라의 당에 대한 사절 파견이 양국의 국교 재개를 의미한다고 보았는데, 이는 일본이 701년 견당사를 파견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였다.<sup>5)</sup> 이후 金壽泰는 전제 왕권을 성립시키고자 한 효소왕의 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친당 정책이 실시되었으며, 699년 2월 당에 도착한 신라의 사절에 대해 “실질적인 대당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사절이라고 언급하여 해당 사절의 의미를 부각시켰다.<sup>6)</sup> 박해현과 曹凡煥 또한 효소왕 정권이 친당 정책을 추진하였다고 하여, 이를 상징하는 것으로 699년 2월 사절의 의미를 강조하였다.<sup>7)</sup>

3) 古畑徹, 1983 『七世紀末から八世紀初かけての新羅・唐關係: 新羅外交史の一試論』 『朝鮮學報』 107, 39-45면.

4) 金英美, 1988 『聖德王代 專制王權에 대한 一考察: 甘山寺 彌勒像·阿彌陀像銘文과 관련하여』 『梨大史苑』 22·23 합집, 383면; 權惠永, 1997 『遣唐使 관련기록의 검토』 『古代韓中外 交史: 遣唐使研究』, 一潮閣, 45면; 李基東, 1998 『新羅 聖德王代の 政治와 社會: ‘君子國’의 内部事情』 『歷史學報』 160, 9면; 정찬식, 1998 『統一期 新羅의 對唐關係研究』, 대구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32-33면; 김한규, 1999 『渤海가 遼東을 占有한 시기의 韓中關係』 『한 중관계사』 I, 아르케, 308-309면; 趙二玉, 2001 『統一新羅 北方進出의 背景』 『統一新羅의 北方進出 研究』, 서경문화사, 58-60면; 신정훈, 2013 앞의 책, 195-196면.

5) 棚橋利光, 1980 『白村江戰後の唐の脅威』 『皇學館論叢』 13(5), 43면.

6) 金壽泰, 1991 『新羅 孝昭王代 眞骨貴族의 동향』 『國史館論叢』 24; 1996 『新羅中代 政治史 研究』, 一潮閣, 44-47면.

그런데 『南單德 墓誌銘』을 살펴보면, 그 墓主 남단덕은 699년 평양에서 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8)</sup> 또한 남단덕의 祖父는 안동도호부를 구성하던 州 중의 하나인 磨米州의 都督을 역임하였다고 하는데, 696년 契丹 세력의 반란 이후 마미주는 저항 세력에 의해 함락되었으므로, 남단덕이 이 지역에서 출생한 것은 안동도호부의 일부 세력이 지역 기반을 잃고 퇴축당하여 평양에 자리하고 있었음을 짐작케 하는 단서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699년 2월 신라의 사절 또한 단순한 조공 목적의 사절이었다기보다는, 안동도호부 방면의 격동하는 정치적 상황을 이들을 통해 인지한 신라의 움직임이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그러한 한편으로 이러한 안동도호부의 동향이 신라에게는 자국의 국제적 지위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로 여겨졌을 것임에도, 효소왕 대에 실제 대당 사절 파견이 『三國史記』상 1회에 불과한 것은 다소 의아하다.<sup>9)</sup> 695~705년 동안 양 대에 걸쳐 愷元이 계속하여 상대등에 재임했음에도, 성덕왕 재위 초인 703년에 2차례, 705년에 2차례, 총 4차례의 대당 사절이 파견된 반면,<sup>10)</sup> 효소왕 재위 후기의 사

7) 박해현, 1996 『孝昭王代 貴族勢力과 王權』 『歷史學研究』 14; 2003 『신라 중대 정치사 연구』, 국학자료원, 72-73면; 曹凡煥, 2010 『神穆太后: 신라 중대 孝昭王代의 정치적 동향과 신목태후의 섭정』 『서강인문논총』 29, 29-30면. 權惠永 또한 2005년의 논고에서는 이 사절이 “나당관계를 실질적으로 복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權惠永, 2005 『8, 9세기 ‘君子國’에 온 唐나라 使節』 『新羅文化』 25, 7면). 필자 또한 과거 석사학위논문에서 이를 따른 바 있었는데(윤태양, 2018 『聖德王의 對唐 외교와 政局 운영』,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7면의 각주 99), 이 글을 통해 수정하고자 한다.

8) 『南單德 墓誌銘』은 2010년 3월 19일 西安市 灞橋區 紅旗鄉에서 출토되었으며, 西安碑林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다. 西安碑林博物館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에 따르면 가로 폭은 44.2cm, 세로 폭은 43.5cm, 두께는 7.5cm이며, 25字 폭으로 24行의 銘文이 쓰여 있다. 찬자는 薛仁貴의 曾孫 薛夔이고, 字體는 楷書體이다[2014 『南單德 墓誌銘』, 『西安碑林博物館 新藏墓誌續編』 下(西安碑林博物館 趙力光 主編), 陝西師範大學出版社有限公司, 376-377면]. 묘지명의 글자 수는 총 533자이며, 묘지명은 大曆 11년(776) 3월 27일 작성되어 4월 28일 매장되었을 것으로 보인다(장병진, 2015 『새로 소개된 고구려 유민 ‘南單德’ 묘지에 대한 검토』 『高句麗渤海研究』 52, 274-275면 및 287면).

9) 실제로는 1회 더 파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도 있는데(金鍾福, 2016 『8세기 초 나당관계의 재개와 사신 파견: 『삼국사기』 신라본기 기사에 오류 수정을 중심으로』 『震檀學報』 126, 9면) 본문에서 다루고자 한다.

10) 『冊府元龜』 권970, 外臣部15, 朝貢3, 長安 3년(703) 정월조; 『삼국사기』 권8, 新羅本紀8,

절은 『삼국사기』에서 699년 2월 단 한 차례만 확인된다. 물론 효소왕에서 성덕왕으로 군주가 바뀌어 정책이 변화하였을 수도 있으나, 성덕왕 대 대당 외교가 국왕의 정통성을 보장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쓰였다는 점을 고려하면<sup>11)</sup> 효소왕 대 후기에도 대당 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동기는 충분하였다고 여겨진다.

때문에 699년 2월 신라 사절이 이른바 친당 정책이라는 맥락에서 양국의 관계 회복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녔는지에 대해서, 다소의 추가적인 검토를 진행해 보려 한다. 이 글에서는 이 당시 신라의 대당 사절 파견 배경에 대해서 살피기 위해 우선 『남단덕 묘지명』에서 나타난 안동도호부 방면의 정치적 변동은 어떠한 것이며, 그 사실이 어느 시점에 신라에 알려져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또한 더 나아가 699년 전후 당의 동방 정책과 사절 왕래 전후의 신라의 상황을 추론하여, 이후 성덕왕 대의 대당 사절과 비교할 때 이 사절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검토해 볼 것이다.

## 2. 『南單德 墓誌銘』에 나타나는 “平壤”의 의미와 安東都護府·新羅의 동향

696년 5월 당의營州 산하에 복속되어 있던 孫萬榮·李盡忠 등의 契丹 세력은 당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다.<sup>12)</sup> 이후 697년 9월까지<sup>13)</sup> 안동도호부 방면에서 거란을 중심으로 당에 대한 저항 세력이 꺾기하면서 안동도호부의 지배 조직은 큰 타격을 받았다. 이에 당은 돌궐의 힘을 빌려 거란의 반란을 진압하였으나, 되려 돌궐이 거란·해 등의 세력을 산하에 흡수하고,<sup>14)</sup> 698년 8월 이후 당에 적대

聖德王 2년(703) 7월조: 『삼국사기』 권8, 新羅本紀8, 聖德王 4년(705) 3월 및 9월조, 703년 7월조 기사는 11월의 것으로 교정된다(金鍾福, 2016 앞의 논문, 11-12면).

11) 金英美, 1988 앞의 논문, 383-384면.

12) 『舊唐書』 권6, 本紀6, 則天皇后 萬歲通天 원년(696) 5월조.

13) 『舊唐書』 권6, 本紀6, 則天皇后 萬歲通天 2년(697) 9월조.

14) 『舊唐書』 권199 하, 列傳149 하, 北狄 奚조 “萬歲通唐年, 契丹叛後, 奚衆管屬突厥, 兩國常遞爲表裏, 號曰兩蕃.”

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당을 침공하였다.<sup>15)</sup> 이로 인해 河北과 遼東 사이의 지역이 처음에는 거란, 이후에는 돌궐에 의해 점령당하면서, 안동도호부 지역과 당 본토의 육로 연결망은 파괴되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南單德 墓誌銘』의 내용은 꽤 특이한 정황을 시사하여 준다.

A. 돌아간 饒陽郡王의 諱는 單德이고, 字(도) 單德이다. … (중략) … 公은 平壤에서 태어나 살다가 장성하여서 安東에 속하였다. … (중략) … 祖父 狄은 磨米州都督이고, 父 于是 歸州刺史였다. 형제[昆弟]는 4명으로 단덕이 적장자[元子]였다. 여러 차례 변방[邊鄙]에 있으면서 충성스럽게 근무하는 소식이 매일 들렸다. 開元 초에 주상께서 사람됨[素]이 재능[藝能]이 있고 무술과 전략을 잘 익혔다는 말을 듣고 內供奉 射生으로 머무르게 하였다. … (중략) … 大曆 11년(776) 3월 27일 병으로 앓아누워 永寧里의 私第에서 죽으니[薨] 연세[春秋]가 78세였다.<sup>16)</sup>

이 자료에서 남단덕은 “平壤”에서 출생하여 776년 78세로 사망하였으며, 역산하면 699년에 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의 祖父인 南狄은 磨米州都督, 父인 南于是 歸州刺史를 역임하였다. 마미주는 高句麗故地 가운데 요동 지방에 위치하였던 지역 중 하나이며,<sup>17)</sup> 安東都護府 산하의 편제가 현전하는 14개 州 중 1곳으로도 확인된다.<sup>18)</sup> 반면 歸州는 현재의 湖北省 宜昌市 姊歸縣 歸州鎮에 위

15) 『舊唐書』 권6, 本紀6, 則天皇后 聖曆 원년(698) 8월조.

16) 『南單德 墓誌銘』 “故饒陽郡王, 諱單德, 字單德. … 公生居平壤, 長隸安東. … 祖狄皇磨米州都督, 父于皇歸州刺史, 昆弟四人, 單德元子也. 累在邊鄙, 忠勤日聞. 開元初, 上知素有藝能兼閑武略, 留內供奉射生 … 以大曆十一年三月廿七日, 寢疾薨于永寧里私第, 春秋七十有八.”

17) 후술할 사료 D-2에서 蓋牟城과 遼東城 사이에 있는 것을 함락 순서로 보아 위치를 비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津田左右吉, 1915 『安東都護府考』 『滿鮮地理歷史研究報告』 1, 東京大學文科大學; 쓰다 소키치(정병준 옮김), 2015 『安東都護府考』 『고구려발해연구』 42, 287면]. 구체적으로는 本溪 邊牛山城(孫進己·馮永謙, 1989 『唐以降戶所置府州本高句麗城者』 『東北歷史地理』 2, 黑龍江人民出版社, 313면; 여호규, 1999 『太子河 유역』 『高句麗城 II: 遼河 流域篇』, 國防軍史研究所, 272-273면)이나 本溪 下堡山城으로 비정된다[王連龍(장보운 옮김), 2016 『전쟁과 운명: 唐 總章 원년(668년) 이후 고려인 생존 상황의 사례 고찰』 『규장각』 46, 388면].

18) 『舊唐書』 권39, 志19, 地理2, 安東都護府 “初置領羈縻州十四, … 新城州都督府·遼州都督府·哥勿州都督府·建安州都督府·南蘇州·木底州·蓋牟州·代那州·倉巖州·磨米州·積利州·黎山州·延津州·安市州, 凡此十四州, 並無城池.”

치한 지역으로, 안동도호부와는 격절된 중국 내륙에 위치한 지역이다.<sup>19)</sup> 또한 남단덕이 “장성하여서 安東에 속하였다[長隸安東]”고 하였으며 開元(713~742) 초에 당에서 내공봉의 관직을 얻은 것으로 보아, 710년대 초반 시점에 이미 남씨 일가는 당의 내지로 이주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고구려 유민인 『高欽德 墓誌銘』 및 『高遠望 墓誌銘』을 참고해 보면, 고희덕과 고원망의 일가는 고구려계 남씨 일가와 마찬가지로 요동 지역의 建安州 都督을 맡았다. 그러나 고희덕(677~733)과 고원망(697~740)의 일가가 고희덕 대까지 건안주도독의 관직을 세습하여 묘지명에 기재한 것과 달리,<sup>20)</sup> 『남단덕 묘지명』에서는 남적 이후의 관력으로 마미주도독을 내세우지 않았다. 『남단덕 묘지명』이 『고흠덕 묘지명』·『고원망 묘지명』에 비해 선대의 관력을 간략히 쓴 경향도 있지만, 『당육전』에 따라 살펴볼 때 마미주가 下州라고 하더라도 마미주도독(종3품 이상)보다 下州인 귀주자사(정4품 하)의 관위가 더 낮다.<sup>21)</sup> 만일 마미주도독의 襲爵이 정상적으로 가능한 상황이었다면, 묘지명에 기록할 관작으로 마미주도독이 아닌 귀주자사를 앞세웠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이 점을 고려하면

19) 김영관, 2017 『高句麗 遺民 南單德 墓誌銘에 대한 연구』 『백제문화』 57, 212-213면.

20) 『高欽德 墓誌銘』, “公諱欽德, 字應休, 渤海人也. 曾祖瑗, 建安州都督, 祖懷, 襲爵建安州都督, 父千, 唐左玉鈐衛中郎”; 『高遠望 墓誌銘』, “君諱遠望, 字幼敏, 先殷人也. … 曾祖懷, 唐雲麾將軍, 建安州都督, 祖千, 唐左玉鈐衛中郎, 襲爵建安州都督, 父欽德, 襲建(安)州都督, 皇右武衛將軍, 幽州府節度知平盧軍事, 承世簪組.” 이외에도 고희덕·고원망은 “冠冕이 계속 이어져서 대를 이어 將帥로서 오래도록 귀하게 되었다[冠冕繼踵, 世將攸稀]”(『고흠덕 묘지명』)는 표현이나, “禮로서 들리는 (바가?: 결자) 있었고 方伯의 가문을 이었다 [禮有聞□, 方伯家綬]”(『고원망 묘지명』)는 표현에서 보이듯 家世가 대대로 이어지는 데 대해 강한 자부심을 표출하였다. 또한 이처럼 고구려 유민 출신의 일가가 안동도호부 산하 도독을 세습하는 양상은 “西北諸蕃及蠻夷”의 “首領”이 都督·刺史職을 “皆得世襲”했다는 기록과도 부합한다(『新唐書』 권43 하, 志33 하, 地理7, 羈縻州). 王連龍(장보운 옮김), 2016 앞의 논문, 390면 참조.

21) 『唐六典』 권30, 三府都護州縣官吏 “大都督府, 都督一人, 從二品. … 中都督府, 都督一人, 正三品. … 下都督府, 都督一人, 從三品. … 上州, 【凡戶滿四萬已上爲上州.】 刺史一人, 從三品. … 中州, 【戶二萬已上.】 刺史一人, 正四品上. … 下州, 【戶不滿二萬者爲下州.】 刺史一人, 正四品下.” 歸州는 戶가 2만에 미치지 못했으므로 下州이며 그곳의 刺史는 정4품 하이다(『舊唐書』 권39, 志19, 地理2, 山南東道, 歸州 “歸州, … 舊領縣三, 戶三千五百三十一, 口二萬一十一. 天寶, 戶四千六百四十五, 口二萬三千四百二十七”).

祖父(南狄)에서 父(南于)로 넘어오는 단계에서, 고구려계 남씨 일가의 습작이 단절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어째서 고구려계 남씨 일가의 마미주도독 습작이 단절되었을까. 우선 『남단덕 묘지명』을 다시 살펴보면, 묘지명에 고구려계 남씨 일가가 고구려에서 활동한 내용이 일절 없으며 선대의 出仕 이력 또한 증조 대부터 기록하는 일반적 경향과 달리 조부 대부터 기록되었다.<sup>22)</sup> 이는 물론 현전 문헌 사료의 한계와 묘지명에서의 선택적인 관력 서술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남단덕 묘지명』의 출토 이전까지 고구려계 남씨의 존재가 확인된 바가 없었고, 중국계 씨족이라고 하더라도<sup>23)</sup> 의례적으로나마 자신들이 고구려에 이주한 시기를 기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볼 때 이는 고구려계 남씨 자체가 유력한 성씨가 아니어서 文飾할 만한 최소한의 계보나 관력조차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다.<sup>24)</sup> 그렇다면 이들이 마미주도독으로 임명된 것 또한, 당에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가능했을 것이다.<sup>25)</sup>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남단덕 묘지명』의 다음 내용이다.

B. 隨(隋) 대 이후 그 나라는 여러 번 천자의 명령[王命]을 어겨서[阻] 여러 해 동안 정벌 당하였다. 시절이 唐 太宗에 이르러 군대[戎]를 총괄하고 친히 행차하여 죄를 물으니 군대[軍師]가 크게 떨쳐 기와와 돌까지도 모두 불태웠다. 이때에 夔의 曾祖인 行軍大惣管·平陽公(薛仁貴)이 갑옷을 갖춰 입고[擐甲] 앞장서서 쳐들어갔으니 城邑을 함락시키고 그 왕과 莫麗支를 생포하여 斬首하고 사로잡은[獲俘] 것을 헤아릴 수 없었다. 이로 인해 遼東(遼東)의 子弟를 나누어 郡縣에 예속시켜 나누어 살게 하였다. 公의 집안은 子弟들의 으뜸[首]이었으므로 安東에 配住하게 하였다.<sup>26)</sup>

22) 김영관, 2017 앞의 논문, 211면.

23) 王菁·王其祜, 2015 『平壤城南氏: 入唐高句麗移民新史料: 西安碑林新藏唐大歷十一年《南單德墓志》』, 『北方文物』 2015-1, 83-85면; 장병진, 2015 앞의 논문, 291-292면; 김영관, 2017 위의 논문, 210-211면 등, 대체로 고구려계 남씨를 중국계라고 보는 데 이견이 없다.

24) 장병진, 2015 위의 논문, 291-292면에서는 마미주에 기반을 둔 漢人계 유력자(“酋渠”)일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나, 김영관, 2017 위의 논문, 207면에서는 증조부 대의 행적이 특별히 내세울 것이 없거나 묘주에게 유리할 것이 없어서 누락되었을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25) 이규호, 2016 『당의 고구려 유민 정책과 유민들의 동향』 『역사와 현실』 101, 148-149면.

26) 『남단덕 묘지명』, “自隨室已來, 其國屢阻王命, 累歲征伐, 曆至于唐太宗愬戎親幸問罪軍師, 大震瓦石俱焚, 時夔曾祖行軍大惣管·平陽公擐甲先驅, 隳拔城邑, 生擒其王·莫麗支, 斬首

『남단덕 묘지명』에서는 고구려가 멸망한 시기는 唐 高宗(재위 649~683) 시기 입에도, 이 시기의 사건을 그보다 이전 시기인 太宗(재위 626~649) 시기의 일과 크게 구분하지 않고 연결 지어 설명하였다. 이는 단순한 착오일 수 있지만, 특히 마미성은 당 태종 시기인 645년에 이미 당에 함락되었고 그곳의 戶口는 다수 당 내지로 이주되었을 것으로 보인다.<sup>27)</sup> 이때의 타격으로 인해 마미성에 있던 재지 기반 세력은 상당히 약화되었을 것이다.<sup>28)</sup> 고구려 내에서의 입지가 비교적 약하였을 남씨 일가가 마미주도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당 태종 시기 이후 마미성(마미주) 현지의 재지 기반 세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당의 기미부주 체제에 참여하는 수령으로 선택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696년 이후 당의 안동도호부 체제는 위기를 맞았고 마미주 또한 이를 모면하지 못했다.

C-1. 이윽고 林胡가 난리를 일으켜 변방의 요새[榆塞]에는 놀란 말들의 먼지가 가득차고, 화살촉이 변방의 후에서 일어나며, 활 쏘는 기병들이 朔野의 들[朔野]에 횡행하였다. … (중략) … 공을 瀟河道討擊大使로 삼고, 이어 淸邊東軍總管을 맡겼다. 공은 엄숙히 심오한 뜻을 받들어 星驅를 번개 같이 몰면서 푸른 파도를 건너 무리 속에서 기병을 징발하였다. 비록 貂虎의 뜻이 맞더라도 갑옷을 입은 자[擐甲者]는 다투어 다다랐으나, 벌과 전갈 같은 무리들[蜂虿]이 길을 가득 채워 창을 든 자[提戈者]는 모이지 않았다. 공은 2000여 명의 병력으로 수만 명의 무리를 격파하였다. 칠종칠금의 공로가 있었으니 승전[三捷]하는 경우가 많았다. 萬歲通天 2년(697) 정월 左玉鈐衛大將軍·左羽林軍上下에 제수되었다. … (중략) … 다만 흉악하고 미친 무리들이 날로 성대해지는 데도 구원병이 이르지 않았다. 수의 차이로 인해 역량이 다르고, 안전하고 위태로운 형세가 몇 배 차이가 났다. … (중략) … 포로로 잡혔지만 언사와 형색은 늙름하여 흉포와 위엄에 굴하지 않아 마침내 죽음을 당하였다. 萬歲通天 2년 5월 23일에 磨米城에서 죽으니, 당시 연세가 72세였다.<sup>29)</sup>

獲俘不可勝計。因此分隸遼東子弟，郡縣散居。公之家，子弟首也，配住安東。”

27) 『삼국사기』 권28, 高句麗本紀6, 寶藏王 4년(645) 10월 “凡拔玄菟·橫山·盖牟·磨米·遼東·白岩·卑沙·夾谷·銀山·後黃十城，徙遼·盖·巖三州戶口，入中國者七萬人。”

28) 김영관은 당이 철군하였으므로 마미주를 장기 점령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고구려 멸망 이후 마미주가 성립했을 것으로 보았다(김영관, 2017 앞의 논문, 211면). 나아가 645년 이후 마미성이 廢絶되어 있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C-2. 萬世通天 원년(696) 5월 칙령을 받들어 父는 瀘河道討擊大使에 임명되었고, 公은 칙령을 받들어 행하고 거란을 깨부순 공적으로 壯武將軍·行左豹韜衛翊府郎將에 제수되었다. 이에 中軍을 통솔하여 外域에서 공을 세웠다. 이미 耿恭의 의탁함[寄旋]에 비등해졌고 來歙의 영광에 점차 가까워졌다. (그러나) 곧이어 도적이 세를 떨쳐 압박하고 밤낮으로 공격당해 땅은 고립되었으며 구원군은 멀리 있어 양식이 다하고 화살은 떨어졌는데도 죽음을 보기를 삶과 같이 했으니 그 기개가 높았다. 부자가 모두 전사하고 적군에게 항복하지 않았다. 萬歲通天 2년(697) 5월 23일 磨米城 남쪽에서 죽으니 연세가 33세였다.<sup>30)</sup>

이 두 묘지명(C-1·2)에 따르면, 당은 697년 5월 23일까지 磨米城 아래에서 고질·고자 등이 이끄는 병력으로 거란에 맞서 싸웠으나 패배하였고, 이로 인해 고질·고자 등이 사망하였다. 이 때 마미성 또한 함락되었을 것이다.<sup>31)</sup> 묘지명에 따르면, 이 때 고질 등은 2000여 명의 병력만으로 수만에 달하는 적 병력을 상대하게 되어 끝내 패배하였다. 묘지명에 文飾된 내용이 있더라도, 당시 마미주의 상황이 이들에게 상당히 불리했다고 보는 데 무리는 없을 것이다. 특히 이때 현지의 고구려 유민들 중 거란과 협력한 세력이 있었을 가능성도 제시된 바 있다.<sup>32)</sup> 이는 이 지역에 연고가 약한 남적 등을 이용한 기미부주 체제의 약점이

29) 「高質 墓誌銘」 “既而林胡作梗，榆塞驚塵，鬪鏑起於邊亭，靛騎橫於朔野。… 制命公爲瀘河道討擊大使，仍充清邊東軍總管。公肅承玄旨，電發星驅，徑度滄波，選徒徵騎。雖貂虎叶志，擐甲者爭馳，而蜂蠆盈途，提戈者未集。公以二千餘兵，擊數萬之衆，七擒有效，三捷居多。萬歲通天二年正月，制除左玉鈐衛大將軍、左羽林軍上下。… 但兇狂日熾，救援不臻，衆寡力殊，安危勢倍。… 爲虜所執，詞色凜然，不屈兇威，遂被屠害。以萬歲通天二年五月廿三日，薨於磨米城，春秋七十有二。”

30) 「高慈 墓誌銘」 “萬歲通天元年五月奉勅差，父充瀘河道討擊大使，公奉勅從行，緣破契丹功，授壯武將軍，行左豹韜衛翊府郎將，忝跡中權，立功外域，既等耿恭之寄旋，霑來歙之榮。尋以寇賊憑陵，晝夜攻逼，坐孤援闕，糧盡矢殫，視死猶生，志氣彌勵，父子俱陷，不屈賊庭，以萬歲通天二年五月廿三日，終於磨米城南。春秋卅有三。”

31) 고질·고자는 697년 3월 당의 육·해로 병진을 통한 안동도호부 회복 계획의 일환으로 파견되었다고 한다(김종복, 2009 『발해의 건국 과정』 『발해정치외교사』, 일지사, 66-67면).

32) 권은주는 해·습·말갈·고구려 유민 등의 反唐 세력이 합세했다고 보았다(권은주, 2010 『7세기 후반 북방민족의 反唐활동과 발해건국』 『백산학보』 86, 169-170면). 여호규·拜根興은 더욱 구체적으로 『고질 묘지명』의 “貂虎의 뜻이 맞았다[貂虎叶志]”는 구절을 고구려 유민[貂]과 거란[虎]이 협력한 것으로 보았으며, “갑옷을 입은 자[擐甲者]”와 달리

노출되었고, 마미주의 지배 기반이 붕괴했음을 말해준다. 그 결과 고구려계 남씨 세력은 697년에는 마미주에서의 기반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보이며, 마미주도독의 습작이 단절되는 것 또한 불가피하였을 것이다.<sup>33)</sup>

그 결과 남단덕이 출생할 무렵인 699년, 고구려계 남씨 일가의 남우는 “平壤”에 체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 “平壤”이 고구려의 옛 수도인 평양인지의 문제가 있는데, 묘지명 본문 내에서 이 “평양”은 “安東”(또는 “遼東(遼東)”)과는 구분되어 쓰였으며<sup>34)</sup> 자연히 이들 지역이 아닌 실제 평양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平壤東皇城” 등을 丸都城의 對岸인 지금의 江界 지역으로 비정하거나<sup>35)</sup> 동천왕 대 천도한 “平壤城”을 國內城을 가리키는 이른바 “上平壤” 개념으로 본 사례도 있지만,<sup>36)</sup> 이러한 유형의 지명은 이른바 “南平壤”을 제외하면 평양 천도 이후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협의의 요동 지역(요동 반도) 지역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러한 “平壤”에 대응할 지명을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평양이 祖籍을 기록한 것이라는 주장에<sup>37)</sup> 반대하여 묘지명에 나타나는 “安東”이 編籍地를 의미한다고 한 추론을 참고하여도<sup>38)</sup> “평양”은 남단덕이 출생한 실제적

“창을 든 자[提戈者]”가 募兵에 응하지 않았다는 구절에 대해, 고구려 유민 중 일부 유력자 이외에 대다수 유민들이 당에 항거한 것이라고 이해하였다(여호규·拜根興, 2017 『遺民墓誌銘을 통해본 唐의 東方政策과 高句麗 遺民의 동향』 『東洋學』 69, 23-25면).

33) 장병진 또한 남씨가 마미주도독으로 있던 시기는 697년 이전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장병진, 2015 앞의 논문, 290면).

34) ‘生居’한 곳은 平壤, ‘長隸’한 곳은 安東으로 구분된다(『남단덕 묘지명』, “公生居平壤, 長隸安東”). 다만 김영관, 2017 앞의 논문 이외의 판독[王菁·王其祜, 2015 앞의 논문; 장병진, 2015 위의 논문; 王連龍(장보운 옮김), 2016 앞의 논문 등]에서는 “安東”에 해당하는 부분을 “遼東”이라고 판독하였는데, 필자는 “安東”에 가까운 듯하여 우선 이를 따랐다 [사진은 2014 앞의 책(西安碑林博物館 趙力光 主編), 380면의 “□東” 부분].



35) 李丙燾, 1976 『高句麗東皇城考』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372-373면; 1977 『譯註 三國史記』, 乙酉文化史, 277면.

36) 苗威, 2011 『高句麗“平壤城”考』 『中國歷史地理論叢』 26-2, 124-128면.

37) 王菁·王其祜, 2015 앞의 논문, 85면.

38) 김영관, 2017 앞의 논문, 214-215면. 단 해당 논자가 필자와 달리 평양에 고구려인에 의한 당의 간접 지배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입장이므로 첨언하자면, 유민 묘지에서 本籍은

지명으로 보는 것이 순리라고 보인다.

그러나 고구려 멸망 이후 평양의 세력 기반은 철저히 해체되어 있었다. 앞서 언급하였듯 669년 평양에서는 3만 8200호(또는 2만 8200호)에 달하는 인원이 중국 내지로 遷徙되었고,<sup>39)</sup> 평양은 “貧弱者”만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sup>40)</sup> 또한 677년 新城으로 안동도호부를 옮기면서 “華人” 관원을 모두 없앴다는 기록에 대해,<sup>41)</sup> 김영관은 이를 기미부주 체제의 성립으로 보고 평양에서도 기미부주 체제가 실시되었다고 보았다.<sup>42)</sup> 그러나 1차적으로 평양의 유력자 계층을 해체시키고, 다시 唐人에 의한 행정 조직인 안동도호부까지 신성으로 후퇴시킨 이후 평양에 재차 기미부주 체제를 성립시키는 것이 용이했을지는 의문이다. 때문에 신라의 서북 방면은 황폐화·방치되어 강력한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져 왔으며,<sup>43)</sup> 현재 남아 있는 안동도호부의 산하 편제 또한 상당수는 본래 요동반도 방면의 것으로 추정되어 평양 인근의 조직을 계승한 확실한 예는 없다.<sup>44)</sup>

“(묘주)諱○, 字○, (도독부 또는 도독부에 대응하는 郡名) (지역 또는 부락)人” 식으로 자주 기재되었다. 예컨대 『禰軍 墓誌銘』의 “公諱軍, 字溫, 熊津嶼夷人也.”, 『陳法子 墓誌銘』의 “君諱法子, 字士平, 熊津西部人也.”, 『泉南生 墓誌銘』의 “公性泉, 諱男生, 字元德, 遼東郡平壤城人也.” 등이 그 전형이 된다(李成制, 2014 『高句麗·百濟遺民 墓誌의 出自 기록과 그 의미』 『韓國古代史研究』 75, 158-162면 참조). 반면 『남단덕 묘지명』의 “公生居平壤, 長隸安東”이라는 표현은 이와는 완전히 다른 유형으로, 本籍의 기재 방식과 관련된 전형적인 기술에 따른 改變이라기보다는 사실 기술일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진다.

39) 『舊唐書』 권5, 本紀5, 高宗 下, 總章 2년(669) 5월 庚子조: 『資治通鑑』 권201, 唐紀17, 高宗 總章 2년 4월조.

40) 『資治通鑑』 권201, 唐紀17, 高宗 總章 2년 4월조.

41) 『資治通鑑』 권202, 唐紀18, 高宗 儀鳳 원년(677) 2월 甲戌조 “徙安東都護府於遼東古城, 先是有華人任東官者, 悉罷之.”

42) 김영관, 2017 앞의 논문, 213-214면.

43) 김종복, 1997 『新羅 聖德王代の 涇江지역 진출 배경』 『成大史林』 12·13 합집, 61-64면; 趙二玉, 2001 『8세기 新羅의 北方開拓과 北方進出의 歷史的 性格』 앞의 책, 196-197면.

44) 쓰다 소키치(정병준 옮김), 2015 앞의 논문, 287-288면에서 위치 미상인 代那·延津州 의 12개소는 모두 요동 지방에 있다고 보았고, 池內宏도 대체로 요동 방면일 것이라고 보았다[池內宏, 1960 『高句麗의 滅亡と安東都護府』 『滿鮮史研究』 上世 第2冊, 吉川弘文館; 이케우치 히로시(정병준 옮김), 2014 『高句麗의 滅亡과 安東都護府』 『동국사학』 56, 420-421면]. 日野開三郎, 1984 『小高句麗國の領域と民族構成』 『日野開三郎 東洋史學論集 8: 小高句麗國の研究』, 三一書房, 461면의 표 31에서도 위치 미상인 代郡州(代那州)와

따라서 평양을 고구려의 옛 수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 비정하기에도, 677년 이후 699년까지 평양 지역에서 당의 기미부주 체제가 정상적으로 유지되었다고 보기에 난감한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남단덕 묘지명』에 나타나는 평양에 대해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다. 상기한 바와 같이 699년 당시 마미주가 함락당하고 남씨 일가의 습작이 단절되었을 것이며, 다만 위기 상황에서도 당을 따르는 일부 세력과(사료 C-1의 “갑옷을 입은 자[擐甲者]” 등) 그들에게 제압당하여 예속된 인원이 있었을 것이다. 이 상황에서 당은 마미주 등 함락된 지역에 기반을 두었던 고구려계 유민들을 평양으로 遷徙시켜 적대 세력과의 연결을 차단하면서 마미주 현지에서의 기반이 해체된 남씨 일가 등에게 이들을 위무하는 역할을 맡긴 것이 아닐까 한다. 당시 예성강 이북 지역에 대한 郡縣制적 지배 체제가 성립되지 않았다고는 하나, 신라에서는 일찍이 羅唐戰爭期에 “平壤 已南 · 百濟土地”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한 바 있었다.<sup>45)</sup> 따라서 남우 등이 자리 잡고 있었던 평양 지역은 당에게는 신라와 마찰을 빚지 않으면서 신라에 접근할 수 있는 최남단의 지역이었다. 이 지역에서 안동도호부의 잔존 세력은 신라와의 암묵적인 경계를 넘지 않으면서 신라와 교섭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만일 이들이 마미주로부터 남하하였다면 그 시점은 언제였을까. 우선 고질 · 고자의 묘지명에서 697년 5월 23일에 고질 · 고자가 전사했으므로, 남우 등의 세력은 마미주를 수복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해당 시점 이후 평양으로 옮겨갔을 것이다. 다른 한편, 697년 10월 신라가 일본에 사절을 보내고 698년 3월 일본이 回答使를 보내었다.<sup>46)</sup> 이 698년 3월의 사절은 670년 왜국이 일본으로 개칭하였다고 한<sup>47)</sup> 이후 『삼국사기』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일본의 사절이며, 효소왕

鴨綠江 右安의 한 곳으로 비정되는 積利州 외에 4都督府 10州는 모두 요하 유역~압록강 사이에 위치한 것으로 비정하였다.

45) 『삼국사기』 권7, 新羅本紀7, 文武王 하, 11년(671) 7월 26일의 이른바 『答薛仁貴書』 참조.

46) 一吉倉 金彌德 · 奈麻 金任想 등의 신라 사절이 697년 10월 辛卯일 일본에 도착하였고(『續日本紀』 권 1, 文武天皇 원년(697) 10월 辛卯조), 이듬해인 698년 2월 甲午일 귀국하였다(『續日本紀』 권1, 文武天皇 2년 2월 甲午조). 이후 일본의 사절이 698년 3월 신라에 도착하였고, 효소왕이 崇禮殿에서 引見하였다(『삼국사기』 권8, 新羅本紀8, 孝昭王 7년(698) 3월조). 鈴木靖民, 1967 『奈良初期の日羅關係』 『續日本紀研究』 134, 19면 참조.

47) 『삼국사기』 권6, 新羅本紀6, 文武王 상, 10년(670)조.

이 직접 崇禮殿에서 引見하였다. 이후 8세기 『삼국사기』에 나타나는 일본의 사절은 특수 사례로서 703년 204명이라는 대인원이 파견된 사례,<sup>48)</sup> 신라에 대해 무례하여 反却된 사례만 언급되었으므로,<sup>49)</sup> 이때의 引見 또한 특별한 정치적 의미를 지녔을 것이다.

그 점에서 698년 4월 일본에서는 薩摩 남쪽의 群島를 조사하기 시작하여 699년 7월 일정한 성과를 보았고,<sup>50)</sup> 이 지역을 거치는 경로를 701년 遣唐使 파견에 이용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sup>51)</sup> 눈에 띈다. 이 점 및 700년까지 양국의 사절이 보이지 않는 점, 신라의 “王子” 파견이 이후로 단절된 점 등을 들어 이 시기 양국의 관계가 냉각되었다고 보기도 하지만,<sup>52)</sup> 이 이후의 사절 또한 여전히 양국의 우호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따르기 어렵다.<sup>53)</sup> 그보다는 699년을 전후하여 일본에서 건당사의 항로를 새롭게 개척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는 아마도 안동도호부의 혼란으로 인해 신라가 당과 일본의 교류를 중개해 주기 어려워졌기 때문일 것이며,<sup>54)</sup> 697년 10월 신라 사절이 알려진 요동 지역의 정세에 대한 정보에 반응한 결과일 것이다. 그러므로 그 정보는 그

48) 『삼국사기』 권8, 新羅本紀8, 聖德王 2년(703)조. 해당 조목은 7월조에 연속되어 있으나 11월조의 잘못으로 추정된다(金鍾福, 2016 앞의 논문, 11-12면).

49) 『삼국사기』 권9, 新羅本紀9, 景德王 원년(742) 10월조: 景德王 12년(753) 8월조.

50) 『續日本紀』 권1, 文武天皇 2년(698) 4월 壬寅조 “遣務廣貳文忌寸博士等八人, 于南嶋覓國, 因給戎器”; 『續日本紀』 권1, 文武天皇 3년(699) 7월 辛未조 “多襖·夜久·菴美·度感等人, 從朝幸而來貢方物. 授位, 賜物, 各有差. 其度感嶋通中國, 【此文中國, 日本也.】於是始矣.”

51) 森克己, 1968 『遣唐使と新羅との關係: 鈴木靖民氏の批判に答う』 『中央大學文學部紀要』 51, 15-19면.

52) 위의 논문, 10-14면 및 20-21면.

53) 700~701년의 신라 사절과 같이 “母王”(신목태후)의 喪을 알리는 사절은(『속일본기』 권 1, 문무천황 4년(700) 11월 壬午조) 전무후무할 뿐 아니라, 701년 大寶令이 선포된 이후에 오히려 신라 사절이 일본의 율령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하정 의례에 참여하였다(濱田耕策, 2002 『聖德王代の政治と外交: 通文博士と倭典をめぐって』 『新羅國史の研究』, 吉川弘文館, 123-125면). 결국 빈도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양국 관계는 여전히 협조적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沈京美, 1999 『新羅 中代 對日關係에 대한 研究』 『統一新羅의 對外關係와 思想研究』(백산학회 편), 백산자료원, 141-145면).

54) 山尾幸久, 1982 『遣唐使』 『東アジア世界における日本古代史講座 6: 日本律令國家と東アジア』(井上光貞 외 編), 學生社, 214-215면.

이전에 신라에 전해졌을 것이므로, 안동도호부의 잔여 세력은 697년 5월~10월 사이에 평양으로 남하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신라는 왜 697년에 곧바로 당에 사절을 파견하지 않았을까. 우선 신라에서는 698년 2월, 幢元이 연로함을 이유로 중시직에서 퇴임하고, 후임자로 順元이 임명되었다.<sup>55)</sup> 효소왕 대인 692년 8월 中侍로 취임하였던 元宣과 696년 정월 중시로 취임한 幢元은 모두 노령을 이유로 퇴임하였으며, 이는 조정에서 관력이 길었던 인물을 중시로 기용하여 정권의 안정을 도모하려 한 것으로 여겨진다.<sup>56)</sup> 반면 698년 2월 중시로 임명된 順元의 관등은 大阿飡(5위)으로 706년에 蘇判(迺飡, 3위), 720년 및 739년에 伊飡(2위)로 나타나므로 적어도 720년 전후까지 관력을 이어나갔던 인물일 것이다.<sup>57)</sup> 이는 老退한 이전의 두 중시와 달리 순원이 상대적으로 연소하였음을 짐작케 한다.<sup>58)</sup> 따라서 순원은 효소왕 정권의 人事 정책의 일정한 변화를 보여주는 인물로, 효소왕 정권은 대당 사절을 파견할 필요성이 생겨났다는 명분을 이용해, 국내의 人事 쇄신을 추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시점에서 볼 때, 순원은 伊飡 慶永의 모반(700)에 연루되어 중시에서 파면된 이후 얼마 되지 않아(706 이전) 정국에 복귀하였다.<sup>59)</sup> 또한 『甘山寺 彌勒菩薩 造像記』의 기록에서 미루어 마찬가지로 경영의 모반에 연루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인물인<sup>60)</sup> 김지성도 705년 당에 사절로 파견되는 것으로 보아 성덕

55) 『삼국사기』 권8, 新羅本紀8, 孝昭王 7년(698) 2월조.

56) 원선·당원이 왕실 내 어른으로서 실질적인 정치력을 행사하기보다는 조언자 역할을 수행하였을 것이라는 견해가(이천우, 2017 『신라 효소왕대의 정국 운영과 성덕왕의 즉위 과정: 김순원의 활동을 중심으로』 『역사학연구』 65, 9면) 참조된다.

57) 『皇福寺 3層 石塔 金銅舍利函記』(706) “蘇判金順元·金興宗, 特奉教旨”; 『삼국사기』 권8, 新羅本紀8, 聖德王 19년(720) 6월조 “納伊飡順元之女, 爲王妃”; 『삼국사기』 권9, 新羅本紀9, 孝成王 3년(739) 3월조 “納伊飡順元女惠明, 爲妃.”

58) 오히려 이 무렵 伊飡 관위를 지닌 體元은 牛頭州總管으로 파견되었고(『삼국사기』 권8, 新羅本紀8, 孝昭王 7년(698) 정월조), 2년 뒤 반란을 일으킨 이찬 경영도 중시가 되지 못하였다.

59) 『황복사 3층 석탑 금동사리함기』(706).

60) 『甘山寺 彌勒菩薩 造像記』 “弟子志誠, 生於聖世, 歷任榮班, 無智略以匡時, 僅免罹於刑憲.”; 文明大, 1974 『新羅 法相宗(瑜伽宗)의 成立問題와 그 美術(上): 甘山寺 彌勒菩薩像 및 阿彌陀佛像과 그 銘文을 中心으로』 『歷史學報』 62, 88면.

왕 대 초기에는 다시 주요한 관원으로 활동하였다.<sup>61)</sup> 이들이 효소왕 대에 등용되었고, 효소왕 말기부터 성덕왕 초 사이에 다시 복권 조치가 이루어진 데 대해서는 당시 양 대에 걸쳐 상대등에 올라 있던 개원과의 밀접한 관계를 가정하는 것이 가장 직관적인 설명으로 보인다.<sup>62)</sup> 따라서 효소왕대 후기에 이미 개원 중심의 관료 집단이 형성되었고 성덕왕대 초기까지 일정한 구심력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본다.<sup>63)</sup>

이상과 같이 697년 안동도호부의 상황을 확인한 이후 중시가 교체되는 양상을 살펴볼 때, 개원 세력은 외교 그 자체를 중요시한 것 못지않게 이를 이용해 국내의 정국 분위기를 쇄신하려는 목적에도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그 점에서 다음 자료가 주목된다.

D. 長壽 원년(692) 壬辰 孝昭(왕)이 즉위하여 처음으로 望德寺를 세워 唐 황실의 복을 빌고자 하였다. … (중략) … 8년(699) 丁酉(697)에 落成會를 치르기 위해

61) 『册府元龜』 권970, 外臣部15, 朝貢3, 神龍 원년(705)조 “三月, 新羅王金志誠遣使來朝. 九月, 又遣使來獻方物.” “新羅王金志誠遣使來朝”는 “新羅王遣金志誠來朝.”로 교정된다(末松保和, 1954 『附錄 第二 甘山寺彌勒尊像及び阿彌陀佛の火光後記』 『新羅史の諸問題』, 東洋文庫, 459-460면).

62) 박해현과 신정훈은 김순원 등이 친효소왕 세력이 아니었으며, 순원 등이 이에 연루된 것 또한 眞骨 貴族 세력이 반대 세력으로서 대두한 사건으로 보았다(박해현, 2003 앞의 책, 78-79면; 신정훈, 2013 앞의 책, 202-206면). 한준수 또한 김순원은 반효소왕적인 진골 귀족 세력의 일원이었으며 성덕왕의 지지 세력으로서 재기에 성공하였다고 보았다(한준수, 2012 『聖德王代 均田制와 府兵制의 변용』 『신라 중대 율령정치사 연구』, 서경문화사, 135-149면). 그러나 순원의 등용 자체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신진 세력을 등용한 이례적인 것이라면, 애초에 순원이 효소왕의 반대 세력이면서 등용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한편 김순원이 국왕과 가까운 혈연관계, 구체적으로는 신문왕의 동생이어서 가능한 일이었다고 보거나[주보돈, 1994 『남북국시대의 지배체제와 정치』 『한국사』 3(강만길 외 편), 한길사, 323면], 문무왕비 慈儀王后 계통의 외척 세력으로 등용된 것으로 보기도 하였는데(이천우, 2017 앞의 논문, 14-16면) 『삼국사기』에는 명시적인 기록이 없는 것이므로 논외로 둔다.

63) 金英美, 1988 앞의 논문, 375-380면에서도 왕실의 종친으로서 개원이 이 시기 정국의 구심점 역할을 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申滢植은 개원의 구체적인 활동 내역이 없다는 점에서 김순원이 독자적으로 성덕왕 옹립에 공헌하였을 것이라고 보았으나(申滢植, 1990 『新羅 中代 專制王權의 展開過程』 『統一新羅史研究』, 三知院, 132-133면) 따르지 않는다.

왕이 친히 행차하여 행사를 치렀다[辦供]. 한 비구가 있었는데 의장[儀彩]이 소박하고 비루하였다. … (중략) … (비구의 모습으로 찾아왔던 眞身佛이 간 곳을 찾아보니) 南山의 參星谷, 혹 말하기는 大磧川源의 바위 위에 지팡이와 밥그릇을 두고 숨었다. 명령받은 사람이 와서 복명하자, 마침내 釋迦寺를 비파암의 아래에 세우고, 佛無事(佛無寺)를 그림자가 사라진 곳에 세워 지팡이와 밥그릇을 모셨다.<sup>64)</sup>

이 기사에 따르면 망덕사가 효소왕대 “始創”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망덕사는 『삼국사기』에 따르면 685년 창건되었고,<sup>65)</sup> 『삼국유사』 문무왕 범민조에서는 671년 무렵에 이미 존재하였던 사찰로 기술하였다.<sup>66)</sup> 따라서 이 기사에서 나타나는 망덕사의 창건 기사에 대해 망덕사가 아닌 다른 사찰(皇福寺)의 창건 기사일 가능성을 제시한 연구가 있었으나,<sup>67)</sup> 문헌에 명시적으로 나타난 사찰의 이름을 임의로 바꾸어 보는 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전에 망덕사와 관련된 전승을 지니고 있었던 인물은 明朗으로, 명랑은 건립 중이던 四天王寺를 중심으로 나당전쟁에서 일종의 護國的 행위에 기여하였다고 기록되었다.<sup>68)</sup> D에서 나타나는 것과 달리,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망덕사는 당을 물리치는 사천왕사의 호국적 역할을 보조한 사찰이며, 당의 사절을 기만하기 위한 사찰이었다.<sup>69)</sup> 이는 망덕사가 685년 창건되었다는 『삼국사기』의 기록을 고려할 때 온전히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명랑계 세력이 망덕사에 연고를

64) 『삼국유사』 권5, 感通 제7, 孝昭王代 眞身受供조 “長壽元年壬辰孝昭即位, 始創望德寺將以奉福唐室. … 八年丁酉設落成會王親駕辦供. 有一比丘儀彩疎陋. … 到南山參星谷或云大磧川源石上置錫鉢而隱. 使來復命, 遂創釋迦寺於琵琶嶺下, 創佛無事於滅影處分置錫鉢焉.”

65) 『삼국사기』 권8, 新羅本紀8, 神文王 5년(685) 4월조.

66) 金壽泰 등은 망덕사의 “始創” 기사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효소왕과 망덕사는 밀접한 관계가 있었으며 효소왕이 망덕사에서 당 황실의 복을 기원한 것으로 보았다(金壽泰, 1996 앞의 책, 46-47면).

67) 장활식은 해당 조목의 망덕사 “始創” 기록이 실제로는 망덕사가 아닌 皇福寺에 대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망덕사에 당 황실의 안녕을 기원한다는 성격이 安·史의 난을 예지한 것으로 여겨진 755년의 사건 이후 부회된 것으로 보았다(장활식, 2011 『통일신라 출범기의 봉성사와 망덕사 창건목적』 『新羅文化』 37, 80-84면).

68) 『삼국유사』 권2, 紀異 제2, 文武王 法敏조.

69) 망덕사에 이러한 이중적 성격이 있다는 점은 일찍이 박해현이 지적한 바 있으나(박해현, 2003 앞의 책, 72-73면), 해당 논고에서는 최종적으로 망덕사가 친당 정책을 대변하는 사찰임에 더욱 집중하였다.



지니고 당과의 항전에서 공헌하였음을 기념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단서로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을까 한다.<sup>70)</sup>

그러한 점에서 당과의 관계 개선을 꾀하는 여러 조치를 시행하였던 효소왕대에 별도로 그 망덕사가 “始創”되었다는 기사가 나타난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692년 즉위 이후 효소왕 정권이 당과의 항전을 상징하였던 사찰인 망덕사에 당 황실에 대한 祈福이라는 성격을 새롭게 부여하고자 이 사찰을 重創한 결과가 아닐까 한다. 이어 안동도호부 유민 세력이 남하한 697년(丁酉) 또는 당에 사절을 보낸 직후였을 699년(효소왕 8년)에 망덕사에서 落成會가 열려, 대당 외교의 방향 전환을 선언하고 기념하였을 것이다. 이를 통해 효소왕 정권은 국내의 정국 분위기를 전환하는 동시에 불교계에 대한 통제력 또한 행사하고자 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망덕사의 낙성회가 釋迦寺와 佛無寺라는 사찰 건립으로 이어지는 것 또한 국왕이 불교계를 재편하고자 하였던 의지를 보여주는 단서일 것이다.<sup>71)</sup>

이와 함께 699년 倉部の 租舍知가 새롭게 설치되었다.<sup>72)</sup> 조사지는 “직무+승知”의 형태로 설치된 관직으로서 가장 늦은 시기에 설치되었다.<sup>73)</sup> “租”는 수취와 관련된 용어이고 倉部는 그 명칭으로 보아 이를 비축·운용하는 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부이므로, 조사지가 설치된 것은 이때에 재정의 운영을 재

70) 해당 조목의 풍랑 기사가 『郭行節 墓誌銘』 등과 합치하여 사실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상훈, 2012 『나당전쟁의 확대와 전투양상』, 『나당전쟁 연구』, 주류성, 154-164면). 이는 해당 조목의 독자 전승이므로, 해당 조목에는 최소한의 사실성이 있고, 671년 전후에 명랑 등이 사천왕사·망덕사의 전신 사찰을 중심으로 종교 의례를 치른 것 또한 사실로 보아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71) 효소왕이 眞身釋迦를 알아보지 못하였다는 이 이야기의 구조는 慈藏이 文殊菩薩을 알아보지 못하였다는 『삼국유사』 권4, 義解 제5, 慈藏定律조와 유사점이 있다. 그런데 자장은 그로부터 머지않아 죽음을 맞는 반면, 효소왕은 이를 기리는 후속 조치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장정률조의 내용이 元曉 등 자장에 대한 비판 세력이 대두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해석을(南東信, 1992 『慈藏의 佛敎思想과 佛敎治國策』, 『韓國史研究』 76, 42-43면) 참조해 비교·대조해 보면 효소왕 또한 망덕사의 重創이라는 사건으로 인해 불교계 반대 세력의 반발을 받았으나, 그와 달리 새로운 사찰을 창건함으로써 분명한 통제력을 행사했다는 점 또한 보여준다고 여겨진다.

72) 『삼국사기』 권38, 雜志7, 職官 上, 倉部 租舍知조 “租舍知一人, 孝昭王八年置.”

73) 井上秀雄, 1974 『三國史記にあらわれた新羅の中央行政官制について』, 『新羅史基礎研究』, 東出版, 288-289면.

정비할 어떠한 이유가 생겼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창고 제도의 운영을 위해 조세 수취 및 비축 체계가 정비되면서 국가의 간선 교통로 또한 정비되었을 것이라고 한다.<sup>74)</sup> 그렇다면 같은 해 대당 사절 파견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이를 통해 대당 使行路와 관련된 각종의 시설과 재원이 정비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D의 사례를 참고하면, 불교계의 재편을 위해서도 조사지의 신설을 통해 확보한 재원이 이용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효소왕 정권은 대당 외교 추진을 명분으로 국내의 人事·재정·사상 등과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 국내 정국을 쇄신하려 하였다고 여겨진다.

안동도호부 잔여 세력의 입장에서도, 당의 동북 지역에서 최초의 문제가 되었던 거란 세력에 대해서는 697년 9월 최종적인 진압이 선언되었다. 그러나 거란의 진압에 협조하였던 돌궐이 곧 營州 등지를 점령하였고, 698년 8월에는 공식적으로 당과 적대적으로 돌아섰다. 따라서 698년 8월 이전까지 안동도호부 세력의 평양 체류가 일시적인 것이었다면, 이후에는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신라에서는 이들의 거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었고, 따라서 698년 하반기에는 당의 정책 방향을 확인할 필요가 생겼을 것이다. 그에 따라 신라에서는 대당 외교가 신라의 대내적 정국을 이끌어나가는 명제로서 자리 잡고, 당의 동방 정책에 대해서도 그 내막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시점에 사절 파견을 준비하였던 것이다.

### 3. 699년 對唐 사절과 “入番”의 문제

699년 2월, 신라의 대당 사절이 당에 도착하였다.<sup>75)</sup> 이 사절의 명목은 단순한 朝貢으로 나타나지만, 상기한 시대적 배경으로 보아 단순한 朝貢使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마도 사절의 파견과 함께 안동도호부 유민 세력의 향방을 비롯

74)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김창석, 2004 『창고제의 성립과 운영』 『삼국과 통일신라의 유통 체계 연구』, 一潮閣, 145-154면 참조.

75) 『삼국사기』 권8, 新羅本紀8, 孝昭王 8년(699) 2월조 “遣使朝唐貢方物.”

한 당의 동방 정책을 탐색하려 하였을 것으로 여겨지며, 안동도호부 붕괴 이후 당의 동방에서의 협력자로서 신라의 지위를 부각시키려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sup>76)</sup> 그런데 당시 당에서도 동방 정책은 중요한 정치적 논의의 대상 중 하나였다. 그것은 다음의 기사에서 확인된다.

E-1. (狄)仁傑이 백성이 서쪽에서 疏勒 등의 4鎮을 지키는 데 (부담을 져서) 지극히 피폐해지자 이에 상소를 올리기를 “臣이 듣건대 하늘이 사방의 오랑캐[四夷]를 태어나게 할 때 모두 先王의 영역[封疆] 밖에 있도록 하였습니다. … (중략) … 최근에 國家에서 여러 해 동안 병력을 내보내어 씩씩이가 커졌으며, 서쪽으로는 4鎮에서 수자리 서고 동쪽으로는 安東에서 수자리 서고 있습니다. (이에) 부세[調]의 징발이 날마다 더해져서 백성들이 가진 것을 잃고 피폐해졌습니다. … (중략) … 臣이 보기에 4鎮을 덜어내어 中國을 살찌우고 安東을 폐지하여 遼西를 채우며 먼 곳의 軍費를 줄이고 장성[塞上]에 병력을 두르듯이 배치하면 곧 恆(州)·代(州)의 鎮이 두터워지며 변방의 州의 방비가 채워질 것입니다. 더구나 夷狄을 위무[綏撫]하는 데는 대개 그들이 넘어오는 것을 막아 침범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걱정을 없게 할 따름이지, 반드시 그 소굴로 다 쳐들어가서 땅강아지와 개미[螻蟻] 같은 이들과 능력을 헤아려 겨룰 필요가 있겠습니까. … (후략) …”라고 하였다.

(적)인걸이 또 安東을 없애고 高氏를 君長으로 복귀시켜 江南의 물자 수송을 정지시키고 河北의 수고로움과 피폐함을 위로하면 수 년 뒤에는 사람들을 안정시키고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 청하였다. 일은 비록 실행되지 않았지만, 지식인들은 그 말이 옳다고 여겼다.<sup>77)</sup>

E-2. 鸞臺侍郎·平章事 적인걸이 표문을 올려 安東을 없애고 그곳의 君長을 복귀시키기를 요청하기를, “臣이 듣건대 先王의 영역이었던 천하[疆理天下]는 모두 封域의 안에 있습니다. … (중략) … 지금 해상[海中]에서 나누어 두 길로 (안동도호부의 유지에 필요한 물자·비용을) 실어 나르는데 풍파가 험난하여 물에 빠져 죽는 자가 많으며, 병력과 식량을 헤아려 보면 오히려 또 부족합니다. 中國과 蕃

76) 古畑徹, 1983 앞의 논문, 39-41면에서도 이러한 사절의 목적을 강조하였다.

77) 『舊唐書』 권89, 列傳39, 狄仁傑, 神功 원년(697)조 “仁傑以百姓西戍疏勒等四鎮, 極爲凋弊, 乃上疏曰, “臣聞天生四夷, 皆在先王封疆之外, … 近者國家頻歲出師, 所費滋廣, 西戍四鎮, 東戍安東, 調發日加, 百姓虛弊, … 如臣所見, 請捐四鎮以肥中國, 罷安東以實遼西, 省軍費於遠方, 并甲兵於塞上, 則恆·代之鎮重, 而邊州之備實矣. 況綏撫夷狄, 蓋防其越逸, 無侵侮之患則可矣, 何必窮其窟穴, 與螻蟻計校長短哉, …” 仁傑又請廢安東, 復高氏爲君長, 停江南之轉輸, 慰河北之勞弊, 數年之後, 可以安人富國. 事雖不行, 識者是之.”

夷가 함께 하기에는 天文이 스스로 막혀 있으며, 遼東에서 지키고 있는 곳은 이미 돌밭이 되었고 靺鞨은 먼 지방이라 또 다시 雞肋(과 같은 형세)이 되었습니다. 지금 사방의 오랑캐를 살찌우고 중국을 수척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니 전범이 되는 통상적인 예[通典]에 어긋날까 하여 두렵습니다. … (중략) … 臣은 薛訥을罷하시고 安東鎮을 없애시기를 바랍니다. 三韓의 君長으로는 高氏가 그 主가 되니, 진실로 바라건대 폐하께서 망한 나라를 되돌리고 끊어진 왕실을 이어주는 뜻으로서 그들의 옛 땅을 회복시키시면, 이것이 아름다운 명분이 되니 (공적이) 堯·舜보다도 드높아지셔서 훌륭한 것입니다.”라고 하였다.<sup>78)</sup>

E-3. 聖歷 3년(700) 3월 6일 勅을 내려 동쪽으로는 高麗國, 남쪽으로는 眞臘國, 서쪽으로는 波斯·吐蕃 및 堅昆都督府, 북쪽으로는 契丹·突厥·靺鞨에 이르기까지를 모두 아울러 入番으로 삼고 그 밖을 絶域으로 삼았으며, 그곳들의 사절을 대우하는 급료는 각각 式에 의거하도록 하였다.<sup>79)</sup>

E-1·2에 나타나는 적인걸의 상소는 中國과 四夷의 자연적 구분, “安東(鎮)”의 철폐, 전쟁으로 인한 부담의 해소 등을 강조·요구한다는 점에서 서로 상당한 공통점이 있다. 또한 이러한 상소가 올라간 시기에 대해 문헌상에 다소 혼선이 있다. 『舊唐書』 적인걸열전에서는 697년에 1차례 상소한 기사를 싣고 “또 … 청하였다[又請]”고 하였으며, 『資治通鑑』에서는 697년 윤 10월에 1회 상소가 올라간 것으로 기록하였다. 반면 『通典』·『唐會要』<sup>80)</sup> 등에서는 699년에 적인걸의 상소가 올라간 것으로 되어 있다. 이로 인해 연구자 간 견해가 상이하지만,<sup>81)</sup>

78) 『通典』 권196, 邊防2, 東夷 下 高句麗, 聖曆 2년(699)조 “鸞臺侍郎·平章事狄仁傑上表請拔安東, 復其君長曰, “臣聞先王疆理天下, 皆是封域之內, … 今以海中分爲兩運, 風波漂蕩, 沒溺至多, 準兵計糧, 猶苦不足. 且中國之與蕃夷, 天文自隔, 遼東所守, 已是石田, 靺鞨遐方, 更爲雞肋. 今欲肥四夷而瘠中國, 恐非通典. … 臣請罷薛訥, 廢安東鎮. 三韓君長, 高氏爲其主, 誠願陛下體存亡繼絕之義, 復其故地, 此之美名, 高於堯·舜遠矣.”

79) 『唐會要』 권100, 雜錄, 聖曆 3년(700) 3월 6일 勅 “聖曆三年三月六日勅, 東至高麗國, 南至眞臘國, 西至波斯·吐蕃, 及堅昆都督府, 北至契丹·突厥·靺鞨, 並爲入番, 以外爲絶域, 其使應給料各依式.”

80) 『唐會要』 권73, 安東都護府, 聖曆 2년(699)조. 기사가 대체로 『통전』과 유사하고 장황하므로 내용은 생략한다.

81) 쓰다 소키치는 양자가 동일한 것으로 697년에 올라간 상소로 보았고[쓰다 소키치(정병준 옮김), 2015 앞의 논문, 292-293면], 日野開三郎은 후자가 697년에 올라간 상소가 파기되었으나 698년에 실행되어 698년 6월 安東都督이 임명된 것을 말하였다고 보았다(日野開

우선 후자에서는 “安東鎮”의 문제만을 다루는 등 전자와 적지 않은 차이가 있고, 적인걸이 697년의 1회 이후 “又請”하여 2회의 상소를 올린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적인걸이 698년 8월에는 納言으로 승진했으므로,<sup>82)</sup> 697년 윤 10월 무렵 1차례, 이후 698년 8월 이전에 1차례의 상소가 각각 올라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다만 문제는 그렇다면 왜 E-2가 『통전』·『당회요』 등에는 699년의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는 697~698년 시점에서 “高氏 君長”의 복구안이 미완의 상태였으나, 699년 고덕무의 파견과 함께 적인걸의 안건이 실행 단계에 들어섰기에 699년의 일로 기록된 것이 아닐까 한다. 다시 말해 698년 초반 高寶元을 忠誠國王으로 임명해 요동 지역의 통치를 위임하려 하였으나 “끝내 실행되

三郎, 1984 『小高句麗國の建國』 앞의 책, 105-106면). 반면 盧泰敦은 2차례에 걸쳐 상소가 올라간 것으로 보았으나 697년의 1건 이외의 다른 1건은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다[盧泰敦, 1981 『高句麗 遺民史 研究: 遼東·唐內地 및 突厥方面의 集團을 중심으로』 『韓洵博士 停年紀念史學論叢』(韓洵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刊行準備委員會 編), 知識產業社: 2020 『고구려 발해사 연구』, 지식산업사, 110면]. 또한 古畑徹은 狄仁傑이 난대시랑으로 있었던 것은 698년 8월 庚子까지이므로 다소 문제가 있지만 697년과 699년 2차례 상소가 올라간 것으로 파악하였으며(古畑徹, 1992 『いわゆる「小高句麗國」の存否問題』 『東洋史研究』 51-2, 214-216면) 黃約瑟은 상소문에 등장하는 薛訥이 파견된 시기를 698년 9월 이후로 보아 698·699년 2차례에 걸쳐 상소가 올라간 것으로 보았다[黃約瑟, 1997 『武則天朝鮮半島政局』 『黃約瑟隋唐史論集』(劉健明 編), 中華書局: (정병준·차오링 옮김), 2015 『武則天과 한반도 정세(黃約瑟)』 『新羅史學報』 35, 257-258면]. 한편 여호규·拜根興은 후자의 상소가 697년 윤10월에 올라갔다고 보았고(여호규·拜根興, 2017 앞의 논문, 24-25면), 김종복은 697년·699년 2차례에 걸쳐 상소가 올라갔으며 후자는 高德武의 파견을 반영한 것으로 파악하였다(김종복, 2017 『완충지대로서의 요동을 통해 본 신라·발해·당의 관계』 『韓國古代史研究』 88, 263-264면).

82) 『舊唐書』 권6, 本紀6, 則天皇后 聖曆 원년(698) 8월 庚子조: 古畑徹, 1992 위의 논문, 215면에 대한 각주 28(227면) 참조. 古畑徹은 그럼에도 薛訥이 左武衛將軍·安東道經略使로 임명되어 안동도호부 방면과 관련된 책임자로 임명된 것은 698년 9월이므로 기년은 착오이고 해당 시점 이후인 699년의 상소일 것이라고 하였다(古畑徹, 1992 앞의 논문, 214-216면). 그러나 해당 논문에서 언급하였듯 697년 薛訥은 中郎將으로 5만 명의 군대를 지휘하여 遼東에 渡海하려 한 바 있었으므로, 최고 책임자라고 할 수는 없어도 안동도호부의 전선을 유지하는 데 그 비중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E-2의 “罷薛訥”은 따라서 “廢安東鎮”에 대응시켜 볼 수 있는 698년 6월 30일 안동도호부의 축소와 대응되는 일로, 이로 인해 돌아온 설놀이 698년 9월 시점에서 洛陽에서 측천무후에게 “발탁[擢]”될 수 있지 않았나 한다. 나아가 역측일 수 있지만, E-2에서 “鞅鞞”의 문제는 확인되나 “突厥”에 대한 언급은 없는 점도, 아직 돌궐과 직접 충돌하기 이전이기 때문으로 짐작하여 본다.

지 않았[事竟不行]"고,<sup>83)</sup> 이에 적인걸이 2차 상소를 올려 우선 698년 6월 30일 安東都護府를 安東都督(府)으로 축소하였으나,<sup>84)</sup> “高氏 君長”을 설정하자는 안건은 아직 실행되지 않다가 699년 高德武를 파견하여 “高氏 君長” 복구 계획이 실질적인 초입 단계에 들어섰던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sup>85)</sup> 특히 이에 대한 상소에서 고씨 군장의 지위는 “三韓君長”으로 지칭되어, 당의 동방을 범칭하여 대변하는 존재와 같이 취급되었다.

그와 관련하여 700년 3월 6일 勅에서 “高麗國”을 언급한 것이 주목된다(E-3). 이 勅에서는 “高麗國”을 동방의 “入番”으로 설정하고, 그 밖을 “絶域”으로 규정하였다.<sup>86)</sup> 이 “高麗國”에 대해 당시 고구려가 멸망한 상태였으므로 신라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보기도 한다.<sup>87)</sup> 그렇지만 만일 그렇다면 그 직전인 699년 신라

83) 『舊唐書』 권199 상, 列傳149 상, 東夷 高麗 “聖曆元年(698), 進授左鷹揚衛大將軍, 封爲忠誠國王, 委其統攝安東舊戶, 事竟不行.” 그 시기에 대해서는 김종복, 2009 앞의 책, 72면 참조.

84) 『唐會要』 권73, 安東都護府, 聖曆 원년(698) 6월 30일조 “改安東都護府爲安東都督府, 以右武衛大將軍高德武爲都督.” 이 기록에 나타나는 高德武는 高仇須의 잘못이라고 한다(古畑徹, 1992 앞의 논문, 43면).

85) 『舊唐書』 권199 상, 列傳 149 상, 東夷 高麗 “(聖曆)二年(699), 又授高藏男德武爲安東都督, 自是高麗舊戶在安東者漸寡少, 分投突厥及靺鞨等, 高氏君長遂絶矣.”

86) 仁井田陞은 “入番”과 “絶域”이 冊封 및 羈縻 정책이 이루어진 범주와 그 바깥을 구분한 것이라고 보았지만(仁井田陞, 1964 『東アジアの固有法と繼受法』 『中國法制史研究 4: 法と慣習·法と道德』, 東京大學出版會, 15-16면), 石見清裕는 이것이 단순한 給料의 지급 규정에 대한 구분이라고 보기도 하였다(石見清裕, 2009 『唐代內附民族對象規定の再檢討: 天聖令·開元二十五年令より』 『東洋史研究』 68-1). 그러나 勅이 선포된 시기가 옛 안동도호부 지역의 복구 계획의 수립 단계와 맞물리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제도적 문제보다도 당에서 교섭 내지 규정하고자 하였던 국가 단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87) 堀敏一, 1993 『中國と古代東アジア世界: 中華の世界と 諸民族』, 岩波書店; 호리 도시카즈(정병준·이원석·채지혜 옮김), 2012 『중화적 세계제국: 수당 변혁기(II)』 『중국과 고대 동아시아 세계: 중화적 세계와 여러 민족들』, 동국대학교 출판부, 302-303면; 石見清裕, 2001 『唐の國際秩序と交易』 『アジア遊學』 26, 25면; 金子修一, 2001 『中國의 입장에서 본 三國統一』 『韓國古代史研究』 23, 12-14면. 이 견해의 근거로 『新唐書』 藝文志에서 崔致遠이 高麗人으로 기록된 사례(정병준, 2013 『청송 주왕산 ‘주왕 전설’의 역사성 검토』 『新羅史學報』 29, 132-133면), 『대당서역구법고승전』에서 義淨이 691년 신라를 “고려국”으로 지칭한 사례, 唐代 都管七個國六瓣銀盒에서 신라를 “고려국”으로 지칭한

의 사절이 당에 직접 도착한 상황에서도 분명한 封國이었던 신라의 국호를 피해 “고려”로 代稱하고 있는 셈이 된다. “高麗國” 이외에 “入番”으로 나타나는 모든 국호들은 실제의 국명 또는 도독부명이라는 점에서도, 신라만 “高麗國”으로 代稱되었다고 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sup>88)</sup> 따라서 해당 勅 또한, 당의 “고려 군장” 파견 계획과 밀접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이때 신라 사절은 어떠한 상황에 있었을까. 이때의 신라 사절에 대한 기사는 몹시 간단하지만, 그와 관련된 것으로 짐작되는 다음의 기사가 참조된다.

F-1. 다시 寅月을 정월로 삼았다.<sup>89)</sup>

F-2. 婆羅門 李無詔. … (중략) … 天后 대의 聖曆 3년(700), 간지로는 庚子인 해의 3월에 新羅國의 승려 明曉가 있었다. 멀리서 와서 唐의 교화를 관망하고서는 돌아가고자 하였는데 이전에 總持門에 뜻을 두었다. 마침내 정성스럽고 고집스럽게 그 眞言을 번역하기를 요청하여서 그 변방에서 함께 그 비밀스러운 가르침을 듣게 하고자 하였다. 마침내 佛授記寺의 翻經院에서 『不空羂索陀羅尼經』 1부를 번역하였으며 沙門 波崙이 기록하였다. 久視 원년(700) 8월에 이르러 번역한 경전을 闕資에서 梵本과 거듭 교감하였고, 바야흐로 베껴서 유포하였다.<sup>90)</sup>

사례, 일본의 『教訓抄』에서 3국악을 모두 “高麗樂”으로 지칭한 사례(김복순, 2013 『신라 지식인들의 西域인식』 『慶州史學』 38, 19-24면) 등이 구체적 실례로 언급되었다. 그 반면에 黃約瑟(정병준·차오링 옮김), 2015 앞의 논문, 257-258면; 金子修一, 2001 앞의 논문에 대한 金瑛河의 토론문, 18-19면 등에서는 이를 700년 당시 안동도독 산하의 고구려 유민 세력으로 이해하였고, 노태돈, 2003 『예빈도에 보인 고구려』, 서울대학교출판부, 53면에서는 멸망 이후의 고구려 지역·유민 세력의 개념으로 이해하였다.

88) 이 기록에서 등장하는 651년 “波斯”가 이미 멸망하였음을 근거로 “高麗” 또한 국가의 명칭이 아닌 지리적 명칭으로 보기도 하였다(노태돈, 2003 위의 책, 53면; 김종복, 2010 『발해의 서남쪽 경계에 대한 재고찰』 『韓國古代史研究』 58, 155면). 그러나 당은 661년 아랍 세력에 의해 몰려난 卑路斯를 받아들여서 州縣을 나누어 波斯都督府 都督으로 제수하고 678년 波斯王으로 책봉하였으며, 708년에도 그 “波斯”가 入朝하였다고 하고 “其國”이라고 지칭하여 존재를 인정하였다(『舊唐書』 권198, 列傳148, 西域, 波斯國조). 따라서 이 “波沙” 또한, 단순한 지명이라기보다는 “君長” 산하의 국명의 의미가 더 컸을 것이다.

89) 『삼국사기』 권8, 新羅本紀8, 孝昭王 9년(700)조 “復以立寅月爲正.”

90) 『開元釋教錄』 권9, 總括群經錄 上的 9, 婆羅門 李無詔조 “婆羅門李無詔, … 於天后代聖曆三年庚子三月, 有新羅國僧明曉, 遠觀唐化將欲旋途, 於總持門先所留意, 遂懇勤固請譯此眞

사료 F-1은 당에서 700년 10월 정월을 복구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sup>91)</sup> 때문에 699년의 사절이 해당 조치를 전하였다고 본 견해가 있는 반면,<sup>92)</sup> 1년 8개월 이상 사절이 체류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으므로 그 기간 사이 추가적인 사절이 파견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존재한다.<sup>93)</sup> 그런데 F-3에 따르면, 신라 승려 明曉는 700년 3월에 귀국하려 하였고, 李無諂에게 『不空羅索陀羅尼經』의 번역을 요청하여 8월에 완료되었다고 한다. 700년 3월 전후 옛 安東都護府와 그 인근 지역은 여전히 당의 군사적 활동의 대상이었으며,<sup>94)</sup> 700년 7월 3일 무렵 당이 동방 지역에 대한 “輸漕”를 재개하였다고 하였다.<sup>95)</sup> 따라서 이 무렵 동방의 해로 교통은 당의 군사적 목적에 따라 통제되었고 그로 인해 신라 사절이 장기 체류하고 있었기에 명효가 5개월에 걸쳐 번역된 경전을 지니고 귀국할 수 있었던 듯하며, 699년에도 그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때에 신라 사절 또한 자국의 이권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당에 체류할 이유가 있었다. 698년 말 무렵에 출발했을 신라 사절은 안동도호부가 안동도독부로 축소되었다는 정보까지는 접하였을 가능성이 있겠으나, 699년 고덕무 파견과 함께 수립된 구체적인 “高氏 君長” 복구론은 접하지 못하였을 것이며 이와 같은 소식은 굉장히 당황스럽게 느껴졌을 것이다.<sup>96)</sup> 이어서 700년 3월 내려진 勅은,

言，使彼邊維同聞秘教，遂於佛授記寺 翻經院，爲譯不空羅索陀羅尼經一部，沙門波峯筆受。至久視元年八月，將所譯經更於闕賓重勘梵本方寫流布。”

91) 『舊唐書』 권6, 本紀6, 則天皇后 久視 원년(700) 10월 甲寅조.

92) 權惠永, 2005 앞의 논문, 7면.

93) 金鍾福, 2016 앞의 논문, 9면.

94) 요동 지역에서 군사 활동을 벌이던 李楷固와 駱務整은 700년 6월이 되어서야 “契丹餘衆”을 이끌고 개신하였으며(『舊唐書』 권89, 列傳39, 狄仁傑조), 『王慶 墓誌銘』에서 보이듯 萬歲通天 연간부터 聖曆 연간까지 南運使가 두어져 군량 수송이 계속되었다. 권은주, 2010 앞의 논문, 169·178면 참조.

95) 『唐會要』 권30, 三陽宮조 “久視元年七月三日, 左補闕張說, … 上疏曰, … 安東近平, 輸漕方始. …”

96) 특히, 이 “고려 군장”을 “三韓의 君長으로는 高氏가 그 主가 되[三韓君長, 高氏爲其主]”는 것으로 이해한 당의 시각은 건국기 말해의 건국자 大祚榮에게 大阿飡 관위를 수여하였다고 하는 등(『東文選』 권33, 表箋3, 『謝不許北國居上表』) 동방에서 자국의 주도적 지위를 주장하였던 신라에게는[濱田耕策, 1978 『唐朝における渤海と新羅の爭長事件』, 『末松保和 博士 古稀記念 古代東アジア史論集』 下(末松保和博士古稀記念會 編), 吉川弘文



신라 사절의 입장에서는 자국은 당의 “絶域”으로 규정하고, 신라 스스로가 멸망시켰던 “高麗國”을 “入番”으로 규정하는 것이었다. 특히 이는 평양까지 남하한 안동도호부의 잔여 세력이 “高麗國”으로 공인받아 당과 그 부용 세력의 영향력이 평양까지 미칠 수 있는 전조로 여겨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은 신라에게는 굉장히 불리하고 또 불쾌한 조치였을 것이며 신라 사절은 이에 대해 반발하는 의사를 전달하였을 것이나, 결국 700년 10월 이후까지 체류하였던 사절단은 正月의 개정이라는 별개의 문제만을 추가로 확인하고 귀국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효소왕 정권의 대당 정책은 가장 중요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셈이 되었다. 아울러 국내에서도 700년 5월에는 伊滄 慶永이 반역을 꾀하다가 사형을 당하고 중시 순원이 연좌되어 파면된 일이 있었으며,<sup>97)</sup> 6월 1일에는 神陸(穆)太后가 사망하여<sup>98)</sup> 정국 불안이 심화되었다. 모반에 연루된 중시 순원이 파면에 그쳤다는 점에서 효소왕 정권의 피해는 최소한으로 방어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약 2년여 간 중시로 임명되는 인물이 나타나지 않는 공백 상태가 이어진 것으로 보아 효소왕 정권이 정국 운영에 적지 않은 곤란을 겪게 된 듯하다.<sup>99)</sup>

순원이 연루되었다는 점에서, 경영은 반란 모의 이전에는 개원 세력에 속했던 순원 등과 정치적으로 교류하였으나, 그로부터 이탈한 세력으로 볼 수 있을 것

館: 1991 『당에 있어서 발해와 신라의 爭長事件』 『발해사의 이해』(임상선 편역), 신서원, 259-263면 참조] 납득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여겨진다.

97) 『삼국사기』 권8, 新羅本紀8, 孝昭王 9년(700) 5월조 “伊滄慶永【永一作玄】謀叛, 伏誅, 中侍順元緣坐罷免.”

98) 『황복사 3층 석탑 금동사리합기』 “聖曆三年庚子六月一日, 神陸太后, 遂以長辭, 高昇淨國, 大足二年壬寅七月廿七日, 孝昭大王登霞.”

99) 선행 연구에서는 이를 진골 귀족 세력의 영향력이 강해진 결과 생겨난 정치적 혼란으로 보았다(金壽泰, 1996 『專制王權의 강화와 嚴貞王后의 출궁』 앞의 책, 66면; 신정훈, 2013 앞의 책, 206-208면). 한편 이를 기록 누락으로 보고 그러한 기록의 누락이 경영의 모반을 포함한 정치적 분쟁에서 승리한 세력(효소왕의 친정을 반대하는 세력)이 오히려 성덕왕의 왕위 계승을 전후로 밀려났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기도 하지만(배재훈, 2015 『성덕왕의 왕위 계승 과정 검토』 『한국전통문화연구』 16, 275면), 필자는 경영의 모반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승리한 세력 또한 타격이 심하여 실제로 중시가 임명되지 못했던 것으로 본다.

이다.<sup>100)</sup> 그렇다면 이찬 경영이 정권에서 이탈한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이 이찬 경영의 모반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700년 5월이었는데, 그렇다면 경영은 당에 파견되었던 신라 사절의 귀국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반란을 모의한 셈이 된다. 무리한 추론일 수 있지만, 그렇다면 경영이 반란을 모의한 정치적 동기는 국정 운영의 화두로서 적극 추진되었던 효소왕 정권의 대당 외교에 대해 사절의 귀환이 늦어지면서 이상이 감지된 점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로 인해 경영은 효소왕 정권의 정책에 회의를 품게 되었고 그것이 모반 사건으로 이어진 것이 아닐까 한다. 결국 효소왕 정권과도 연관을 맺고 있던 경영의 모반 사건이 일어나자, 순원 등의 인물이 이에 불가피하게 연좌되었고, 그로 인해 개원 세력 또한 큰 타격을 받았을 것이다.

경영의 모반을 진압한 이후에도 700년 10월 이후 당에서 귀국하였던 신라 사절단이 전해온 정보는 전혀 호의적이지 않은 것이었다. 그 결과 700년 10월 이후 신라의 사절단이 귀국하자 정월을 개정하여 향후 당과의 관계에 대비하는 등 일종의 예비적 조치는 취해졌으나, 702년 7월 효소왕이 사망하기 전까지 대당 사절은 다시 파견되지 않았다.

반면 이때까지의 상황을 성덕왕 대의 상황과 대비시켜 보고자 할 때, 이러한 소극적 태도가 전환되는 계기로서 다음의 기사가 주목된다.

100) 辛鐘遠은 김순원이 경영의 모반 때 한 차례 실패했으나 결국 2년 뒤 효소왕을 타도하는데 성공하여 성덕왕을 즉위시킨 것으로 보았다(辛鐘遠, 1987 『新羅五臺山事蹟과 聖德王의 即位背景』, 『崔永禧先生 華甲紀念 韓國史學論叢』(崔永禧先生 華甲紀念 論叢刊行委員會 編), 探究堂, 124면). 박해현 또한 김순원이 반효소왕적인 眞骨 貴族 세력에 속하였으며 이찬 경영의 모반은 이들 반대파가 효소왕에 대항한 사건이라고 보았고(박해현, 2003 앞의 책, 78-79면), 신정훈 또한 김순원과 경영이 혈연관계에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경영과 김순원에 대해 진골 귀족 세력을 대변하는 인물로 파악하였다(신정훈, 2013 위의 책, 202-206면). 반면 金壽泰는 김순원과 경영 등이 왕당파이며 반란이 실패하여 왕당파 세력이 진골 귀족 세력에게 밀려난 것으로 보았으며(金壽泰, 1996 위의 책, 51-56면), 曹凡煥도 이를 따랐다(曹凡煥, 2010 앞의 논문, 31-32면). 그러나 크게 돌로 갈라지는 이러한 견해 모두 김순원과 경영 양자를 유사한 세력이라고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현재 경영의 행적에 대해 전하지 않는 사료의 한계상 불가피한 부분이 있지만, 그와 같이 볼 경우 경영은 伏誅된 것과 달리 김순원이 파면되는 것에 그친 것을 설명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세부적인 정치적 입장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당대의 정책과 관련하여 두 인물의 정치 노선이 분기한 노선이 설명될 필요가 있으며, 본문에서는 이를 외교적인 차원에서 해명하고자 노력하였다.

G. 魏元忠을 安東道安撫大使로 삼고 羽林衛大將軍 李多祚를 檢校幽州都督으로, 右羽林衛將軍 薛訥·左武衛將軍 駱務整을 부장[副]으로 삼았다.<sup>101)</sup>

효소왕이 702년 7월 27일 사망한 이후, 신라의 告哀使는 703년 정월 당에 도착하여 작년 효소왕이 사망했음을 알리고 윤 4월에 성덕왕의 책봉을 받았다.<sup>102)</sup> 사절 파견에 다소의 사절이 걸린 것에 대해 기존의 연구에서는 효소왕에서 성덕왕으로의 왕위 계승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았다.<sup>103)</sup> 그렇지만 신라가 당시의 대당 외교 자체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 반전을 가져올 만한 정보가 702년 12월의 “安東道” 按撫大使의 설치 계획(G)이었을 것이다. 선행 연구에서 지적하였듯, G의 내용은 동방 지역에 대해 “安東道”라는 새로운 작전 방면이 설정된 것이었다.<sup>104)</sup> 이는 이다조가 檢校幽州都督으로 임명된 데서 보아, 幽州 등 육로 방면으로부터 출병하여 최종적으로 안동도호부를 회복하려 했음을 보여준다.<sup>105)</sup> 그런데 여기서 고덕무 등 고구려계 세력이 보이지 않는다. 이는 고덕무의 유민 招誘 활동이 거둔 성과가 미진하였고, 나아가 당이 당시 설정하였던 요동 방면의 “入番” 高麗의 구성이 어려워졌음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앞의 勅(E-3)에서 당에서 동방의 “入番”으로 설정하였던 것은 “高麗國”이 유일하였다. 그런데 “高麗國”의 구성이 어려워졌다고 하면, 그것은 당의 四方 관념

101) 『資治通鑑』 권207, 唐紀23, 長安 2년(702) 12월 甲午조 “以魏元忠爲安東道安撫大使, 羽林衛大將軍李多祚檢校幽州都督, 右羽林衛將軍薛訥·左武衛將軍駱務整爲之副.”

102) 『삼국사기』 권8, 新羅本紀8, 聖德王 원년(702)조 “聖德王立, … 唐則天聞孝昭薨, 爲之舉哀, 輟朝二日. 遣使吊慰, 冊王爲新羅王, 仍襲兄將軍都督之號”; 『冊府元龜』 권970, 外臣部 15, 朝貢3, 長安 3년(703) 정월조: 『資治通鑑』 권207, 唐紀23, 長安 3년 閏4월 己卯조 “新羅王金理洪卒, 遣使立其弟崇基爲王.”

103) 이상 金鍾福, 2016 앞의 논문, 10-11면.

104) 古畑徹, 1983 앞의 논문, 48-49면.

105) 이는 唐休景이 幽·營 2州都督·安東都護를 겸하였다고 하는 것과 같이(『新唐書』 권4, 本紀4, 則天皇后 長安 4년(704) 8월 戊申조) 幽州에 안동도호부가 고치된 형태로 계승되었을 것이다(김중복, 2017 앞의 논문, 265-266면). 한편 김중복은 705년 2월 4일 당의 국호·관제 등이 武周의 것으로부터 복구되는 시점에 안동도호부가 복구되었으며 그 시점에 고덕무도 송환되었을 것이라고 보았지만, 본문에서 언급하듯 그 시기가 더 소급될 여지가 있다고 여겨진다.

에 공백이 생김을 의미한다. 이에 신라는 “高麗國”을 대체할 동방의 친선국으로서 자국의 지위를 강조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측천무후가 2일 간 조회를 열지 않는 등 효소왕의 죽음에 대해 깊이 애도한 것 또한, 그로 인해 당의 동방 정책에서 신라의 중요성이 부각된 결과물로 여겨진다.<sup>106)</sup>

효소왕의 고애사를 통해 이러한 정황을 확인하였던 신라에서는 당과의 사절 교환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고애사가 귀국한 이후 다시금 金思讓을 파견하여서 『最勝王經』을 획득해 왔다는 기사는<sup>107)</sup> 이러한 대외적 정황에 맞추어, 신라에서 당과의 교류에 다시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는 출발점으로서 의미가 있다.<sup>108)</sup> 이어 개원이 상대등에서 물러나기 직전, 705년에는 다시 1년에 2차례의 사절을 파견하여,<sup>109)</sup> 당과 신라의 관계를 재확인하고 마침내 대당 외교에서의 오랜 과제를 매듭지었던 것이다.

#### 4. 맺음말

이상의 내용을, 특히 서두에서 제시한 699년 대당 사절이 지닌 의미라는 차원에서 정리하고자 한다. 『남단덕 묘지명』을 참조하면, 697년 하반기 무렵부터 당의 안동도호부 조직에 심대한 타격이 있었다는 정보가 평양에 옮겨간 남우 등 안동도호부 유민 세력에 의해 신라에 전해졌을 것이다. 효소왕 정권은 이를 계기로 대당 외교를 앞세워 국내의 분위기를 쇄신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1년여의 整地 작업을 거쳐 보낸 사절이 699년 2월 당에 도착하였다. 다시 말해,

106) 古畑徹은 이러한 의식이 705년 贊普의 사망 소식에 1일간 輟朝한 吐蕃보다도 높은 대우였으며, 『大唐開元禮』에 따르면 蕃國主의 喪은 輟朝하는 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율령의 규정을 넘어선 특례에 가까우며 신라를 회유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古畑徹, 1983 앞의 논문, 51-54면).

107) 『삼국사기』 권8, 新羅本紀8, 聖德王 2년(703) 7(11)월조; 3년(704) 3월조.

108) 특히 이 과정에서, 측천무후 정권의 崇佛 정책 또한 중요한 고려의 대상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신선혜, 2016 『신라 성덕왕대 禁殺生 下敎의 배경과 의미』 『한국고대사연구』 83, 283-288면 참조).

109) 『삼국사기』 권8, 新羅本紀8, 聖德王 4년(705) 3월조 및 9월조.

699년 2월에 당에 도착한 신라의 대당 사절은 효소왕 정권의 대내적·대외적 정책의 결정체였다.

그러나 699년 2월 당에 도착한 사절이 접하였던 소식은 신라의 기대와는 크게 어긋나는 것이었다. 699~700년 당시 당은 고덕무를 안동도독으로 파견하면서, “入番”으로서 “高氏 君長”에 의한 “高麗國”의 재건을 꾀하였다. 이는 「남단덕 묘지명」으로 보아 평양까지 남하하였던 안동도호부 유민 세력이 당으로부터 입지를 공인받고 새로운 정치체로 부각될 수 있음을 의미하였다. 한편 사절의 귀국이 지연되는 동안, 효소왕 정권 또한 내적으로 경영의 모반으로 대표되는 불협화음을 겪었다. 끝내 대당 사절이 귀국하면서 신라 국내에 전해 왔던 정보는 효소왕 정권에게는 대내적 정국 운영에도 불리하였을 것이며, 이로 인해 효소왕 정권이 추진하였던 대당 외교는 일시 중지되었다.

결국 효소왕 정권 시기인 699년 2월에 당에 도달했던 사절은 신라의 이른바 친당 정책이 신라 일방의 의지만으로 가능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효소왕 후기와 성덕왕 초기의 집권 세력이 개원을 중심으로 한 세력으로서 상당한 유사점을 지니고 있음에도, 대당 외교라는 측면에서 성덕왕 대에 들어서야 적극적인 외교로 전환할 수 있었던 것 또한, 고덕무 중심의 “고려국” 재건 계획이 무산되고 기존의 연구에서 언급하였듯 703년 이후 당에서 요동 방면이 아닌 육로를 중심으로 “安東道”에 대한 새로운 수복 계획을 세운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여겨진다.

주제어 : 孝昭王, 신라-당 관계, 金順元, 安東都護府, “高麗國” 재건 계획

투고일(2020. 11. 13), 심사시작일(2020. 11. 23), 심사완료일(2020. 12. 3)

〈Abstract〉

## The Meaning of Envoy Sent by Silla, in the Late Period of King Hyoso(孝昭王)'s Reign

Yun, Taeyang\*

In this paper, I tried to reveal the meaning of envoy dispatched by Silla which reached Tang dynasty in February of 699, in the context of the reconstruction of Silla-Tang relations. Referring to the *Epitaph of Nandande*(南單德墓誌銘), we can estimate that the displaced people from Andong Protectorate(安東都護府), including Nanwu, moved from Liaodung to Pyeongyang near 697. The information might be delivered to King Hyoso(孝昭王)'s regime, and they are thought to have attempted to renovate the domestic atmosphere, using diplomacy between Silla and Tang as a political tool. After the reorganization of the national system over a year, the envoy arrived at Tang dynasty as a result of the new domestic and foreign policies of Silla.

However, Tang dynasty around 699-700 sent Godeokmu(高德武) as a chief controller of Andong commandery(安東都督) and tried to rebuild “Goryeo state(高麗國)” as an “external boundary countries which can be related to Tang China(入番)” led by “Go clan chief(高氏 君長)”. This action could mean public approval of the displaced people from Andong Protectorate who settled lately at Pyeongyang, nearby Silla, as constituents of a polity. Also, during the time when the return of the envoy was delayed, a discord in the domestic government was exposed as a form of treason by Gyeongyeong(慶永). The external policy of Tang dynasty was unfavorable news too at that time, so it is seen that the diplomatic policies of King Hyoso's regime had to be aborted.

This political situation shows that the reconstruction of Silla-Tang relations could not succeed only by the will of Silla itself. Also, that demonstrates why Silla could truly switch its diplomatic policy to a more active one afterward the succession of King Seongdeok(聖德王), despite the similarity of ruling political faction between the regime

---

\* Ph.D. Candidate, Department of History, Sogang University.

of later period of King Hyoso's reign and one of the early period of King Seongdeok's reign. It could have been established around 703 by the change of Tang dynasty's eastern policy to recover its territory by onshore "Andongdao(安東道)", not by "Go clan chief" Godeokmu and the displaced people of Andong Protectorate, as the former researches argued.

**Key Words** : King Hyoso(孝昭王), Silla-Tang Relations, Kim Sun-won(金順元), Andong Protectorate, Rebuilding Plan of 'Goryeo state'